

金日成體制的 神政의 特性*

李 相 禹

I. 序

III. 神政體制로의 轉化

II. 全體主義 專制政治의 典型

IV. 맺는 말

I. 序

北韓에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 이후 40년간에 걸쳐 북한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북한정치체제는 소련점령군에 의하여 설계된 소련식 共產全體主義 專制體制로부터 시작되었다. 초기 北韓政治體制는 비교정치학에서 논하는 이른바 全體主義模型의 여러 특성을 가장 완벽하게 갖춘 典型的 全體主義體制였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金日成의 지배역량이 증대함에 따라 金日成主體思想—金日成主義로 발전되어 온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經典으로 삼는 특이한 神政的 絕對主義 專制政治體制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政治의 世俗的 宗教化時期는 대체로 1970년대 중반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은 北韓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 일탈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神政體制的 特性은 統治權威의 神格化에서 찾아진다. 일반적인 全體主義 一黨專制政治에서는 專制的 當爲를 全體主義이데올로기의 實踐要求에서 구하며 黨의 物理的 支配力으로 統治權을 행사하나 神政體制에서는 統治權의 當위를 超人間的인 絕對者의 神性에서 구하며 統治權은 人民의 信

*本 研究는 1987年度 文教部 共產圈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 東亞研究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心에 기초하여 행사한다. 北韓의 경우 金日成主義는 金日成의 神格化를 위한 經典으로 개발되었으며 政治敎化를 통하여 全人民에게 金日成의 神性を 믿도록 함으로써 神政體制를 구축하였다.

이 論文에서는 스탈린式 마르크스·레닌主義 全體主義體制에서 金日成神政體制로 轉化되어 간 北韓政治體制變化를 金日成主體思想의 變化過程을 추적하여 규명하려 한다.

II. 全體主義 專制政治의 典型

40년의 세월속에서 北韓은 가장 완벽한 레닌主義的 全體主義社會로 성장하였다. 全體主義의 核心的 本質은 온 社會의 모든 市民의 日常生活과 그들의 思想 및 行爲에 대한 政權의 총체적 統制에서 찾을 수 있는데¹⁾ 오늘의 北韓社會는 바로 이러한 全體主義社會의 本質을 가장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全體主義政治는 專制政治(*autocracy*)이다. 統治者が 統治를 함에 있어서 오직 自己에게만 責任지게 되면 그 統治者는 專制者(*autocrat*)가 된다. 專制者는 先例에도 매이지 않고 法에도 묶이지 않으며 어떠한 政治組織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全體主義體制에서 統治者는 支配政黨의 指導者로서 政黨의 절대적 지지라는 名目的 확인절차만을 거치고 모든 統治行爲를 恣意로 행한다. 全體를 위한다는 주관적인 道德的 正當性を 토대로 專制를 하는 政治體制가 全體主義 政治體制이다. 全體主義는 專制의 근거를 이데올로기體系로 美化한 것 이외는 本質的으로 神政體制의 專制政

1)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 Autocracy*, 2nd edition, (New York: Praeger, 1965), p. 16. 이들은 全體主義의 本質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the essence of totalitarianism is to be seen in such a regime's total control of the everyday life of its citizens, of its control, more particularly, of their thoughts and attitudes as well as their activities..... the particular criterion of totalitarian rule is the creeping rape of man by the perversion of his thoughts and his social life...."

治나 絶對王朝時代의 專制體制나 같다. 그런 뜻에서 全體主義 政治體制는 20世紀의 産業社會에 맞도록 꾸며놓은 專制政治라고도 한다.²⁾

全體主義 獨裁政權의 共通된 특징으로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와 브레진스키(Zbigniew K. Brzezinski)는 ① 人間生活의 모든 국면을 규제하는 이데올로기, ② 일인지배의 唯一大衆政黨에 의한 統治, ③ 黨과 비밀경찰에 의한 테러體制, ④ 大衆媒體의 獨占, ⑤ 武力의 獨占 및 ⑥ 全體經濟의 中央統制 등 6가지를 꼽고 있는데³⁾ 이러한 모든 특징을 오늘의 北韓社會는 다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완벽한 全體主義典型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첫째로, 北韓은 金日成主體思想이라고 하는 절대적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통치되는 사회이다. 北韓의 현행 헌법(1972년 제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公式이데올로기 支配社會임을 선언하고 있다.

둘째로, 北韓은 金日成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조선노동당」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다. 노동당의 주체사상이 국가의 지도지침이 되어 있는 北韓에서 어떠한 다른 정당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노동당의 예속조직일 수 밖에 없다.

셋째로, 당과 당 지배하의 정부기관에 의한 反體制인사 및 反動階級에 대한 숙청기록은 北韓의 테러체제의 효율성을 입증하여 주고 있다. 1956년의 이른바 「8月政變」 이후 북한에는 어떠한 형태의 反體制운동도 없었다는 사실은 北韓의 테러體制的 효율성을 입증하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네째로, 北韓은 黨과 政府가 모든 大衆媒體를 독점하고 있다. 黨과 政府기관 이외의 어떤 단체도 언론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2) *Ibid.* p. 15. “...totalitarian regimes are autocracies, ... totalitarian dictatorship, in a sense, is the adaptation of autocracy to twentieth-century industrial society.”

3) *Ibid.* pp. 21~22. 편의상 단순화해서 제시했다.

다섯째로, 北韓에서는 사실상의 종신 主席인 金日成이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헌법 93조)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어떠한 武力을 사용한 반란이 있는 적이 없다. 이 점에서 프리드리히·브레진스키의 다섯번째 조건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北韓은 전국이래 모든 經濟活動에 대하여 中央統制를 실시하여 왔다.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北韓은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국가의 토대”로 하며(헌법 제2조)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헌법 제18조)이며 협동단체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국가소유)로 전환”(헌법 제21조)하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헌법 제30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北韓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갖춘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철저하게 중앙통제를 실시하는 나라이다.

이렇듯 北韓의 現實이 프리드리히·브레진스키가 제시하는 全體主義體制 특성 모두를 충족한다는 뜻에서 우리는 北韓社會를 가장 완벽한 全體主義體制典型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北韓社會는 全體主義體制 중에서도 레닌主義 全體主義類型에 해당된다. 이오네스쿠(Ghita Ionescu)는 레닌主義 社會主義國家들이 가지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要約하고 있다.⁴⁾ ① 戰爭에 起源한 出現, ② 生産手段의 私有철폐, ③ 幕僚(apparat)國家, ④ 目標指向的(teleological)國家 및 ⑤ 反對不許國家.

北韓政權은 第2次 世界大戰의 結果로 蘇聯軍이 北韓을 佔領하고 있는 상태에서 창출된 이른바 ‘占領共產政權’이다. 또한 北韓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생산수단의 私有를 처음부터 철폐했었다. 이오네스쿠가 말하는 幕僚國家란 지도자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政權기구에 의하여 國家가 운영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幕僚는 黨의 일부 조직, 또는 軍

4) Ghita Ionescu, *Comparative Communist Politics*, (London: Macmillan, 1972), pp. 43~50.

의 일부 조직일 수도 있고 경찰조직일 수도 있다. 北韓은 오직 金日成에
게만 책임지는 조선노동당⁵⁾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으므로 이오네스쿠가 말
하는 전형적인 幕僚國家라 할 수 있다.

北韓은 처음부터 目的을 설정하고 政權을 세웠다. 北韓政權의 담당자
인 조선노동당은 “當面目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
수하는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온 사회의 主體思想化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
설하는데 있다”고 黨規約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끝으로 北韓은 一黨支配國家로서 어떠한 反對黨도 허용하지 않고 또한
黨內意思決定에서도 철저히 反對를 배제하는 體制를 갖추고 있으므로 ‘反
對不許國家’의 특성도 철저히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北韓政權의 특징을 간단히 표현한다면 결국 가장 완벽한 “레닌主義 全體
主義專制國家의 典型”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神政體制로의 轉化

1. 全體主義와 이데올로기

全體主義 專制政治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색은 專制를 정당화하는 이데올
로기, 즉 政治理念에서 찾을 수 있다. 全體主義는 專制의 타당근거를 “全
體를 위한 理想鄉 건설이라는 目的”을 체계화한 理念에 두고 있다.

이데올로기란 行動으로 이어지는 觀念의 體系다. 이데올로기는 한 社會
가 도달하여야 할 理想狀態, 그리고 그 理想에 비추어 본 現實批判, 理想
과 現實의 연결방법을 제시하는 理論體系 및 現實을 타파하고 理想으로
전진할 구체적 行動綱領 등으로 구성된다.

5) 조선노동당규약(1980년개정) 前文에서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
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지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조
선노동당은 김일성 이외에는 어떤 권위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理想社會의 상정에서 내세우는 價値體系가 社會를 구성하는 個人의 행복에 앞서 有機體로서의 社會集團 전체의 바른 모습에 중점을 두고 설정될 때 그 理念을 全體主義이데올로기라고 한다.⁶⁾

全體主義이데올로기는 제시하고 있는 理想社會像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뉜다. 또한 하나의 全體主義 專制社會도 그 支配이데올로기의 內容變化에 따라 다른 형태의 全體主義 專制社會로 變化한다. 全體主義 專制社會의 특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社會를 이끄는 支配이데올로기의 內容을 分析하여야 한다.

北韓全體主義는 全體主義 專制政治의 正當化근거를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創造的으로 적용한 金日成主體思想”에 두고 있다. 그 점에서 北韓全體主義는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다르다. 金日成主體思想은 철학적 기초에서 古典的 마르크스主義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專制政治의 合理化論理에 있어서는 레닌主義와 같다. 그런 점에서 北韓全體主義는 ‘레닌主義의 全體主義’라고 불리도 무방하다.

2. 獨自의 이데올로기의 發展過程

北韓社會는 1945년부터 1950년까지 一次로 蘇聯占領軍의 指導와 統制 아래에서 스탈린主義의인 蘇聯全體主義 모형을 본딴 全體主義社會로 改編되었으며 韓國戰 이후 中共軍의 占領下에서 蘇聯의 統制力이 弱화된 때로부터 점차로 독자적인 특색을 지닌 全體主義 專制社會로 다시 變轉되기 시작하였다.⁷⁾

6) Friedrich 와 Brzezinski 는 이데올로기의 支配價値의 全體性보다 社會改革 對象局面의 全體性에 의미를 두고 全體主義를 규정한다. 그들은 全體主義이데올로기를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a reasonably coherent body of ideas concerning practical means of [how totally to change and reconstruct a society by force, or violence, based upon an all-inclusive or total criticism of what is wrong with the existing or antecedent society.” Friedrich & Brzezinski, *op. cit.* pp. 88~89.

7) 初期에 北韓이 스탈린主義의 專制主義社會로 改編되던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北韓全體主義 專制體制的 變化과정을 추적하려 하면 北韓의 支配이데올로기의 내용변천을 살펴보면 된다. 北韓은 蘇聯통제 하에서는 독자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지 못하였고 오직 蘇聯의 官製이데올로기를 수용하였을 뿐이다.⁸⁾ 北韓이 독자적인 이데올로기의 개발필요를 느끼기 시작했던 시기는 스탈린格下運動이 심화되던 1955년경이고 본격적으로 새 이데올로기를 정립해 나가기 시작했던 시기는 中蘇紛爭의 격화로 더 이상 中共이나 蘇聯의 官製이데올로기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없게 된 1966년경부터이며 독자적 이데올로기의 체계화를 이룬 것은 「主體哲學」을 처음으로 내어놓았던 1970년대 초이다. 따라서 北韓의 全體主義성격도 전국 초기부터 대체로 1960년대 중반까지의 스탈린式 社會主義 全體主義 시기와 그 이후의 金日成主體思想에 기초한 1人獨裁型 全體主義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⁹⁾

北韓政權당국이 공식문서를 통하여 '새시대', 즉 마르크스·레닌主義的 全體主義에서 金日成主體思想的 全體主義로 轉移해 온 과정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연설,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에서 처음으로 主體確立 필요성 강조.
- 1966년 8월 12일 노동신문사설, “자주성을 옹호하자”에서 최초로 主體의 필요성을 공식선포.

글을 참조할 것. 金甲喆, “北韓의 소비에트化過程”, 北韓研究所編, 「北韓政治論」 1984, pp. 72~106 및 梁好民, “北韓의 소비에트化”,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共產圈研究室編, 「北韓共產化過程研究」, 1972, pp. 1~27.

- 8) 北韓政權수립 초기에는 소련 모스크바大學에서 파견된 소련인 교수 한사람만이 마르크스·레닌主義 강의를 했고 교과서도 蘇聯 스탈린時代의 官製교재인 「哲學教程」을 번역해서 썼다고 한다. 신일철, 「북한주체철학의 비판적 분석」, (서울: 사회발전연구소, 1987), pp. 20~21.
- 9) 北韓에서의 官製이데올로기 정비과정을 申一澈교수는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① 蘇聯모방기(1945~1957), ② 毛思想混入期(1957~1959), ③ 金日成思想준비기(1960년대초), ④ 主體哲學의 체계화시기(1966~1970), ⑤ 主體哲學의 완성기(1970~1973), ⑥ 金日成主義 보람발전시기(1973~현재). 신일철, *ibid.*, pp. 23~24. 표현을 다소 단순화시켰음을 밝혀둔다.

-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 5차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개정 당규약 전문에서 “조선노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우리나라 현실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 최초로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同格으로 내세움.
- 1972년 12월 27일 개정헌법 제 4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 본래의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제외.
- 1980년 10월 13일 조선노동당 제 6차 전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전문에서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밝힘으로써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 완전독립.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北韓은 대체로 1970년대로부터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 벗어나 金日成主體思想時代로 넘어갔음을 알 수 있다.

3. 金日成主體思想과 一人專制體制

金日成主體思想을 北韓에서는 공식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뜻은 마르크스·레닌主義가 思想의 原型이며 여기에 ‘創造的 變型’을 가했다는 의미인데 마르크스·레닌主義 要素를 얼마나 잔존시켰으며 어느 정도 創造하였는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金日成主體思想의 公式解說이라 할 김일성대학 ‘哲學講座’의 방대한 내용에서 마르크스나 레닌, 그리고 그 외의 마르크스主義者들의 引用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金日成主體思想에서 마르크스는 죽었다”고 까지 표현하기도 하는데,¹⁰⁾ 실제로 마르크스·레닌主義요소 중 主體思想에 남아 있는 것은 ① 社會改革目標와의 關係에서 근로대중의 解放과 근로대중이 지배하는 社會체제를 이상으로 한다는 점, ② 生産手段의

10) *Ibid.* pp. 11~16.

私有制 불인정, ③ 個人的 自由와 責任을 社會와의 關係에서 파악한다는 人間에 대한 數的 本質(Gattungswesen)수용, ④ 革命成就方法에서 黨中心의 大衆動員을 주축으로 한다는 레닌戰略의 수용, 그리고 ⑤ 레닌式的 극단적 엘리트즘(elitism)의 수용정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 외의 부분에서는 哲學의 기초에서부터 階級形成論理, 理想社會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점에서 마르크스主義에서 벗어나고 있어 사실상 마르크스·레닌主義의 變型이라고 보기보다는 새로운 思想體系의 創造로 봄이 마땅할 것이다.

金日成主體思想은 人間中心世界觀, 근로대중集團主義, 絶對的 엘리트主義의 세가지를 中核으로 構成되어 있다.¹¹⁾ 이 세가지 생각을 人民大衆에게 획일적으로 注入시켜 意識改造를 통한 人間改造를 성취하여 金日成을 神格化하려는 意識의 노력의 總體가 곧 金日成主體思想이라는 政治이데올로기로 보면 된다.¹²⁾

金日成主體思想이 기초로 삼고 있는 世界觀은 이른바 人間中心世界觀이다. 金日成은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主人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¹³⁾ 이를 부연하면 “사람과 세계와의 關係에서 외부세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외부세계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하여 객관세

11)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글에서 詳論한 바 있다. 李相禹, 「韓國의 安保環境」第2輯 增補版, (서울: 西江大學校出版部), 1986, 第22章, “北韓의 오늘과 내일: 政治理念, 社會變化와 對南政策” pp. 387~411 참조.

12) 金日成主體思想에 대한 解說 및 分析에 대해서는 다음 글들을 볼 것. ① 金甲喆, 「北韓 政治이데올로기分析: 主體思想을 중심으로」, (서울: 書香閣, 1977), ② 신일철, 「북한 주체철학의 비판적분석」, (서울: 사회발전연구소, 1987), ③ 高性俊, 「主體思想의 金日成主義化에 관한 연구」, (서울: 건국대학교(박사 학위 논문), 1988), ④ Ho-min Yang, “Juche Idea: North Korean Ideological Setting,” C.S. Chung & G.C. Kim, eds., *North Korean Communism*,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80), pp. 126~168, ⑤ Han-Shik Park, “The Ideology of North Korean Communism: A Critical Assessment,” Jae-Kyu Park & Jung-gun Kim, eds., *The Politics of North Korea*,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1979), pp. 143~162. 北韓側 해석서로는 ① 황장엽,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 「근로자」, 1979년 4월호, pp. 20~28, ②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③ 김일성대학 방송대학 강의록, 「철학강좌」, 1973.

13) 「김일성저작선집」, 제 7권, (평양: 노동당출판부, 1978), p. 280.

계가 사람의 운명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사람 자신이 자기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⁴⁾

金日成은 “사람은 自主性과 創造性을 가진 社會的 存在입니다. 사람은 目的意識의이며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해 나가는 가장 발전되고 힘있는 존재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⁵⁾

이러한 金日成主體思想의 人間中心世界觀은 마르크스의 唯物論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인데, 이 주장은 1950년대 소련에서 일기 시작했던 ‘토대와 상부구조논쟁’의 결과로 1960년대에 소련에서 그들의 「哲學敎科」를 수정, ‘意識의 能動的 역할’을 인정하면서 영향받아 진일보 해 나간 것이다. 마르크스는 「정치경제학비판 서문」에서 물질적 생산력에 대응하여 생산관계가 규정되고 생산관계의 총체로서의 하부구조에 대응하여 법률, 정치체제 등의 상부구조가 결정되며 인간의식이 일정한 형태를 갖게 된다는 이른바 ‘존재결정론’, 즉 社會的 存在가 人間意識을 결정한다는 주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하여 金日成主體思想에서는 “의식은 물질에 그 원천을 두고 물질에 의해서 형성되고 물질에 의해서 규정되지만, 그것이 일단 발생한 다음에는 상대적 차이점을 가지고 물질세계에 대해서 실천을 통해 큰 힘으로 적극적으로 반작용한다”¹⁶⁾고 주장함으로써 意識의 獨自性을 인정, 마르크스의 唯物論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켰다.

이러한 論理는 革命方法에 대해서도 중요한 차이를 들어낸다. 金日成主體思想에서는 마르크스의 革命自然發生論은 정식으로 부정되고 레닌主義的인 革命的 意識的 鬭爭說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生産樣式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革命理論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근본원인을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모순에서 찾았는데” 그것은 잘못이며 근로인민대중의 革命意志, 革命力量이 革命的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⁷⁾

14) 황장엽, *op. cit.*, p. 23.

15) 김일성,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 2권, 1977, p. 243.

16) 「철학강좌」, p. 21, 신일철 *op. cit.*, p. 53에서 再引用.

17) 황장엽, *op. cit.*, p. 24.

人間中心世界觀을 階級革命論으로 확장하는 두번째 論理的 要素가 勤勞大衆 集團主義이다. 金日成主體思想에서는 人間을 社會的 存在(Gemeinwesen)로 본다. 사람의 본질적 특색은 自主性和 創造性인데 “사람의 自主意識과 創造的 能力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 자주적인 思想意識과 創造的 能力은 社會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해 온 사람의 社會的 屬性”이기 때문에¹⁸⁾ 社會의 一員으로서가 아니면 自主性和 創造性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個人은 같은 처지에 있는 集團의 一員으로 그 集團과 함께 존재하며 따라서 集團은 곧 個人의 확장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人間의 본질적 특성인 自主性和 創造性도 集團의 自主性和 創造性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즉 集團이 自主性和 創造性을 가질 때 그 一員인 個人도 自主性和 創造性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個人의 解放은 個人이 속한 階級的 解放과 直接되게 된다.

金日成主體思想에서는 個人의 확장으로서의 集團을 ‘인민대중’ 또는 ‘근로대중’으로 규정짓고 있다. 社會構成員 전체로 보지 않는다. 오직 人民階級만을 個人의 확장으로서의 集團으로 보고 自主性和 創造性을 발휘하도록 해방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階級규정도 古典의 마르크스主義에서 처럼 生産手段의 所有여부 등 객관적 사실에 의하지 않고 主體思想을 받아들이는가 아닌가라는 주관적인 기준에 의한다. 마치 기독교에서 神의 절대성을 인정하는가 하지 않는가로 信者와 非信者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극단의 主觀的인 기준을 적용한다.

金日成主體思想에서의 革命理論은 이러한 集團主義에서 출발한다. 個人은 自主性和 創造性을 발휘하기 위하여 이를 제약하는 社會體制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 하는데 이러한 改革意志가 人民大衆의 集團意志로 될 때 곧 階級革命意志가 된다고 본다. 그래서 革命은 “근로인민대중의 自主性을 실현하기 위한 鬪爭”이며 革命의 목적은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구속과 예측에서 벗어나 국가와 社會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

18) *Ibid.*, p. 22.

적인 생활을 누리는데 있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다.¹⁹⁾

金日成主體思想의 세번째 要素는 絕對的 엘리트主義인데 이것은 레닌이 革命前衛로서의 黨의 役割을 강조해 온 것을 한층 더 발전시켜 黨을 거쳐 首領의 指導로 연결시킨 논리이다.

金日成主體思想에서는 革命의 原動力이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모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自主性和 創造性을 위한 人民의 투쟁의지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人民大衆은 스스로 革命意志를 갖지 못한다. 人民大衆이 政治的 각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革命의 前衛인 黨의 領導가 있어야 한다. ‘근로계급의 탁월한 首領’이 노동계급과 근로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이익을 반영한 革命思想을 내어 놓고 그것을 指導的 指針으로 하는 黨을 창건하고 그의 革命的 領導를 실현함으로써만 노동계급은 비로소 ‘自主的 革命階級’이 된다고 주장한다.²⁰⁾ 이를 정리하면, 人民大衆의 이익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首領과 그의 지침을 실현하는 黨이 있어야만 人民大衆은 革命意志를 갖게 된다는 論理이다. 그리고 首領의 唯一的 領導體系가 확립되어 全黨과 全體근로대중이 수령의 革命思想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영도를 따라 나갈 때에만 근로인민대중은 自主的 立場에 확고히 설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²¹⁾

이상의 세가지 요소를 연결하여 보면 金日成主體思想이란 金日成이라는 수령 一人의 專制體制 확립의 당위성을 전개하는 논리체계에 불과하다. 개인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최고가치로 내세워 人本主義 철학처럼 분석하였지만 개인의 자주성과 창의성, 그리고 주체성은 黨의 지도를 받아야만

19) *Ibid.* p. 24.

20) *Ibid.* p. 26.

21) *Ibid.* p. 26. 황장엽은 個人專制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대중에 대한 당의 영도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영도이다. 당이 근로인민대중을 영도한다는 것은 결국 全黨과 전체 근로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思想意志로 굳게 묶어세워 그들이 수령의 영도를 따라 조직적으로 투쟁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수령의 영토밑에 당과 대중의 사상적 통일과 조직적 단합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대중을 당정책 관철에로 이끌어 나가는 문제 자체가 설 수 없다.”

갖추어질 수 있고, 또한 당은 수령 일인의 영도를 받아야 바르게 인민을 영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논리상 自主性, 創意性, 主體性은 수령인 金日成 한 사람만의 自主, 創意, 主體로 귀결되고 다른 모든 사람은 오직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질 뿐이다.

金日成主體思想은 가장 완벽한 一人專制政治體制를 合理化하는 이데올로기이며 金日成主體思想의 唯一思想으로 온 나라가 무장되었다고 하는 北韓支配者들의 公言은 결국 北韓社會가 一人支配의 全體主義 專制主義社會로 되었다는 것을 公言하고 있는 셈이다.

北韓은 政權수립 40년만에 史上 類例가 없는 획일적 專制社會로 되어 버렸다.

4. 神政體制로의 發展

北韓體制가 다른 全體主義 專制體制와 다른 점은 支配權威의 妥當근거설정에서 찾을 수 있다. 레닌主義에서는 프롤레타리아獨裁를 共產體制로의 轉移期, 즉 過渡期에서 革命的 戰利品을 革命的 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정당화하면서 人民의 뜻을 바르게 대표하는 黨을 支配權威의 담당자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北韓政權에서는 모든 權威의 源泉을 金日成 一人으로 限定하고 있다. 北韓體制는 이런 점에서 近代의 全體主義 專制體制보다는 支配者의 神性에서 支配의 正統性을 찾는 東洋의 專制君主制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²²⁾

統治權威를 조직이나 職이 아닌 自然人的 神性에서 찾게 되면 그 政治體制는 이미 神政體制로 된다. 보통 사람은 그 누구도 그 神性を 나누어 가질 수 없으므로 支配者의 地位를 승계할 수 없으며 오직 그 神性的 權威를 빌어 神性を 대표하는 사람이 위임한 사람만이 統治權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2) Friedrich & Brzezinski, *op. cit.* p. 9. 참조. 여기서 oriental despotic regime의 특색으로 "...the legitimacy rests upon a divinely sanctioned blood descent and some sort of identification of the ruler with the deity as master of the universe"라고 표현하고 있다.

北韓은 金日成의 神性を 支配權威의 源천으로 하는 神政國家로 되었다면 ‘權力承繼’란 있을 수 없다. 흔히 金日成의 統治權承繼者로 그의 아들 金正日을 거론하고 있으나 그것은 北韓體制의 神政性を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만일 金正日이 金日成의 後任으로 主席의 자리에 앉는다 하더라도 金正日是 오직 金日成의 權威로 統治할 뿐이다. 비유하자면 그리스도는 자기의 權威가 아니라 하느님의 權威로 인간들을 靈的으로 지배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하느님을 ‘承繼’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北韓에 一黨獨裁를 실시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金日成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못박아 공언하고 있다(黨규약전문). 따라서 누가 黨의 새로운 수령이 되더라도 黨의 지도노선을 바꿀 수 없게 되어 있다. 宗教에서 神의 敎理에 해당되는 것이 金日成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이므로 누가 黨의 수령직을 계승하더라도 수령의 職을 넘는 절대적 권위로서의 金日成의 말씀을 따라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새로운 黨首, 黨간부는 오직 金日成敎의 司祭職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北韓이 단순한 一人專制 政治體制에서 金日成神政體制로 전환된 시기를 정확히 포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金日成主體思想을 ‘金日成主義’로 定式化한 때와 같이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金日成主義의 定式化는 대체로 1970年代초부터 시작하여 1974年 2月 19日 金正日이 “은 사회를 金日成主義化하기 위한 黨 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한 때쯤에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²³⁾ 그리고 金正日은 1982年 3월에 金日成主義를 총정리한 “主體思想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같은해 4월 1일자 「로동신문」에서는 이 논문을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고 그 체계와 내용과 원리 및 방법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논문”이라고 평가한 것을 보면 아마도 북한 당국에서는 대체로 1980년대 초를 金日成神政體制 完成期로 보고 있는 것 같다.

23) 金日成主義의 定式化過程에 대해서는 高性俊, *op. cit.* pp. 69~77을 참조할 것.

이제 北韓은 金日成을 神格化하였고 金日成主義 經典을 갖추었고 노동당이라고 하는 司祭團을 가진 완전한 宗教團體로 되었다.

北韓은 단순한 全體主義社會가 아니다. 共產主義國家도 아니다. 이제 金日成敎라는 특이한 唯一神을 가진 宗教國家로 되었다. 北韓社會의 이러한 宗教國家的 特性을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의 北韓社會를 이해하기 어렵다. 北韓의 政治도 社會도 文化도, 그리고 北韓의 對外關係도 北韓의 宗教國家的 特色을 前提하지 않고는 쉽게 理解할 수 없다.

Ⅳ. 맺는 말

北韓社會는 지난 40년간 특이한 종교국가로 성장하여 왔다. 蘇聯軍政 3년간에 북한사회는 蘇聯式 共產全體主義 專制政治體制로 개편되었으며,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탄생하면서 이 체제가 승계되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당시의 北韓體制의 支配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레닌主義였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통치체제는 소련식 레닌主義政黨으로 조직된 노동당의 일당지배체제였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서면서 支配이데올로기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약 10년간 北韓統治者들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創造的 적용”이라는 이름 아래 金日成主體思想이라는 새로운 一人支配專制政治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그 전의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北韓당국은 金日成主體思想에서 모든 統治權威를 自然人 金日成의 權威에 연결하는 일층 강화된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金日成主義를 내세우기 시작하였으며 北韓社會 자체를 金日成 唯一神을 받드는 宗教國家로 개편해 왔다. 金日成은 神格化되고 金日成의 言說은 經典化되었다. 이제 北韓은 金日成의 生死와 관계없이 神性を 부여받은 金日成의 權威로 통치되도록 되었다.

金日成主義라는 宗教化된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통치하는 北韓社會는 여러 점에서 다른 全體主義 專制社會와 달라지고 있다. 北韓은 生産手段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社會主義國家이며 人民獨裁의 階級國家이다. 그러나 階級을 財產 등 객관적 조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金日成主義에 대한 忠誠度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마르크스·레닌主義 국가와 다르다.

北韓은 노동당 一黨支配國家이다. 그러나 다른 一黨獨裁國家에서는 黨이라는 조직체가 權威를 독점하고 있는데 비해 北韓에서는 黨이 아닌 金日成一人的 神格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특성을 갖는다. 이런 특성은 權力承繼문제에서 다른 一黨獨裁體制와 다른 모양을 보여준다. 蘇聯과 中共 등에서는 黨자체가 權威의 보루이기 때문에 自然人的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 독재를 하게 되며 그 黨內에서의 序列鬭爭에서의 勝者가 統治者로 浮上하게 된다. 그러나 北韓의 경우는 다르다. 權威의 源泉이 金日成의 神性이므로 그 權威는 누구도 承繼할 수 없다. 오직 金日成의 이름으로 司祭에 해당하는 사람이 統治를 할 수 있을 뿐이다. 金正日是 金日成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金日成의 권위를 빌어 다음 司祭가 등장할 때까지 統治를 하게 될 뿐이다.

北韓의 이러한 世俗宗教의 支配形態는 그 原型에 있어서 近代國家로서의 社會主義 全體主義보다도 王朝時代의 專制主義 國家體制에 더 가깝다. 朝鮮朝는 儒敎敎理라는 絶對的 價値體系가 正當化해 주는 絶對主權에 의해서 統治되었으며 그 權威의 행사자는 王의 世襲子孫으로 膺당되었었다. 그런 뜻에서 北韓은 金日成王朝를 이룩했다고 보면 된다.²⁴⁾

神政社會로서의 北韓社會의 특색은 統治權의 포괄성에서 찾을 수 있다. 統治者는 人民의 政治生活만을 간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人民의 物質的 生活, 文化活動 등 모든 領域을 지배한다. 뿐만 아니라 人間의 內面的 精神世界까지 통제한다. 그런 점에서 北韓은 역사상 어느 全體主義보다도 더 철저한 全體主義 專制社會로 굳어졌다고 할 수 있다. “수령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수령님의 뜻에 따라 일하고, 수령님의 뜻에 따라 죽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가 北韓社會이다.

24) 註 22 참조.